

“여성 차별 개선 등 인권 향상 허브역할 충실”

●김경례 제6대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2022년 10월 취임...연구·강사 양성·제도 개선 진행
올해 과제 발굴·네트워크 사업·성 감수성 교육 추진

“사회에 만연한 여성 차별의 구조적 개선 등을 통해 성평등 광주 공동체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제116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을 하루 앞둔 7일 김경례(53·여·사진)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대한민국은 OECD 가입 이래 성별 임금 격차 1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남성과 여성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구조적 차별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남대 여성연구소 연구원, 광주시 인권유무부즈맨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22년 10월 제6대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해 여성의 주제와 인권 보호,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은 2011년 설립된 성평등 정책 전문기관으로 여성가족정책연구, 교육, 교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성평등 관련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유관 기관과 연계를 통해 교육 활동과 제도 개선 등을 하고 있다.

재단은 기존 폭력에 의한 성범죄들과 최근 불법 촬영, 딥 페이크(가짜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 편집물) 등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연구 및 근거 마련과 행정기관과 연계해 여성이 안전한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 재단은 ▲성별 임금 격차 실태 및 개선



방안 ▲성평등 네트워크 사업 ▲성인지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광주지역 민간기업의 성별 임금 격차 개선을 위해 객관적인 지표 수집과 실태 파악 등을 통해 정책과제 발굴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재단·행정·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해 성평등 도시를 조성하고 여성단체 회원 간 소통 및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여성 이슈 공론화, 여성 폭력 예방 및 여성인권 증진에 대한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학생과 일반 시민, 단체 등을 대상으로 젠더 감수성 향상, 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전문 강사를 지속해서 양성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여전히 존재하는 여성 차별을 없애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제도 및 사업, 정책을 꾸준히 연구하고 만들어 가겠다”며 “다양한 단체 간 허브 역할을 하는 만큼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 소통하고 성평등 도시 조성에 앞장서며 전문 강사를 통해 학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성 감수성에 대한 교육도 꾸준히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성학기자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 별세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가 7일 별세했다. 향년 96세.

이료계에 따르면 손 여사는 이날 오후 늦게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수환으로 별세했다.

2015년 김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9년 만이다. 손 여사는 이화여대 3학년 재학 중인 1951년 김 전 대통령과 결혼했다.

유족으로는 김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 둔 아들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등 2남 3녀가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에서 차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학내 민주화양장’ 김홍명 전 조선대 총장 별세



김홍명 전 조선대 총장이 6일 오전 11시께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79세.

광주에서 태어난 김 전 총장은 광주교과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1978년 럿거스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루소와 마르크스·엡겔스의 정치철학을 연구했다.

미국에서 하버드대 연구교수를 지내다 귀국, 1980년 5월 광주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 투옥되기도 했다. 김 전 총장은 이돈명(1922-2011) 변호사와 함께 조선대 학내 민주화 운동을 펼쳤으며 1999년 2월 조선대 총장직으로 임명돼 학교 발전을 이끌었다.

유족은 부인 장하진 전 여성가족부 장관과 사이에 2남으로 김기민·김재정(홍익대 화공과 교수)씨가 있다. 장하진 전 대통령 정책실장은 고인의 처남이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이며 발인은 9일 오전 6시50분로 예정돼 있다. 김 전 총장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아 국립 5·18민주묘지에 안장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SG리더아카데미, 2기 최고경영자과정 개강

ESG리더아카데미(대표 윤병갑)는 “최근 2024년도 제2기 최고경영자과정 개강식을 광주 서구 차평동 라마다플라자호텔 4층 대연회에서 가졌다”고 7일 밝혔다.

개강식에는 ESG리더아카데미 최고경영자 ESG-CEO 원우 및 지난해 수료한 제1기 원우 등 84명이 참석했다.

개강식에서는 문성후 연세대학교 겸임교수(미국 뉴욕주 변호사)의 ‘경영의 핫 키워드를 부르는 ESG경영’이라는 주제 특강에 이어 가나통신전력공사 민명기 1기 원우회장의 축사, 2기에 입학한 남도금형 오기중 대표이사 회장의 답사, 입학생 소개 및 환영사 등이 이뤄졌다.

/정은술기자



농기원 ‘전남생명농업대학’ 입학식

전남도농업기술원은 7일 농업기술원 청년창업농에서 2024학년도 신입생과 대학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생명농업대학’ 입학식을 개최했다.

전남생명농업대학은 급변하는 국내외 농업 여건 및 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친환경농업 보급과 디지털농업을 선도할 전문 농업경영인 양성을 목표로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2024학년도 교육은 전남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과 건강한 미래를 위한 ‘친환경특용작물’ 과정과 최근 SNS와 인터넷

에서 수많은 구독자를 보유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influencer)를 양성할 ‘디지털 마케팅’ 과정 등 2개 과정 44명을 선발했다.

교육은 3~11월 과정별로 매일 2~3일씩 총 50일간 이론과 현장중심 교육을 병행해 실시되며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를 초청한 이론교육과 선도농가·연구기관 방문 등 현장과 접목한 맞춤형 교육으로 이뤄진다.

박홍재 전남도농업기술원장은 “교육을 통해 변화하는 농산업 트렌드를 헤쳐 나갈 기술과 지혜를 익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서구, 일자리위원회서 올해 세부계획 심의

광주 서구는 7일 “전날 구청 이음홀에서 ‘2024년 일자리 대책 세부계획’ 심의를 위한 일자리 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는 김이강 서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과 사용자·노동자 대표, 중소기업·사회적 경제·중장년 일자리 전문가 등 14명의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일자리 정책 발굴과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운영 방향 ▲서구의 일자리 목표 ▲구체적인 일자리 대책 세부 계획 등을 심의했다.

서구는 민선 8기 일자리 비전인 ‘사람과 마을,

경제가 상생하는 골목중심 경제도시 조성’을 실현하기 위해 인프라 조성, 청년·중장년·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을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각 분야의 2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서구는 올해 구민을 위한 일자리 9천여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위원회가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담당하며 다양한 계층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성학기자



신안소방, 관내 부속섬 방문 서비스 전개

신안소방서는 7일 “전날 관내 주요 부속섬 ‘당사도’를 방문해 의용소방대·청년회와 함께 섬 주민 대상 119생활안전서비스를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소방관서가 설치되지 않은 부속섬의 소방 안전 서비스를 확대하고, 화재·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했다. 주요 활동은 ▲주택 화재 안전 진단 ▲생활

불편 해소(안전순찰이 설치·육실 등 미끄럼 방지) ▲건강 체크 ▲위험요소 제거 ▲노후 전기·가스시설 점검·정비 등 세대별 맞춤형 소방 안전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이번 활동은 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며, 의용소방대·청년회와의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 사회와 유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신안=양훈기자

보성경찰, 여성일상지킴이 간담회·합동순찰

보성경찰서는 7일 “전날 여성이 안전한 보성을 위해 ‘여성일상지킴이’와 함께 간담회·합동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여성일상지킴이는 보성지역 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여성 14명으로 구성됐으며, 지속적인 소통으로 여성들의 범죄 불안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손을 보태고 있다.

이번 간담회·합동순찰에서는 보성읍내 여성안심귀갓길 순찰과 보성역, 매일시장 등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홍보활동이 이뤄졌다. 양백승 경찰서장은 “보성경찰-여성일상지



킴이 간 적극적인 협력으로 관내 여성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기자

장흥경찰, 경찰발전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장흥경찰서는 “최근 경찰서 3층 천관마루에서 주민 참여 정성치안을 위한 경찰발전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협의회장 이·취임식, 신규회원 위촉식이 이뤄졌다.

장흥경찰은 참여·정성치안 취지·추진방향을 설명하고 협력 단체의 적극 참여를 통해 참여치안이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신행희 장흥경찰서장은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관이 함께하는 참



여치안이 중요하다”며 협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장흥=노형록기자

광주시민단체협, 기우식 사무처장 임명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7일 “기우식 전(前) 참여자치 2 사무처장을 신임 사무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기우식 신임 사무처장은 “무엇보다 회원단체 역량 강화를 위한 연대와 협력, 시민단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제반 여건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또한 “시민을 위한 시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회원단체와 함께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대안 제시 활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장은정기자



영광경찰, 실종자 수색 드론 지원·합동순찰

영광경찰서는 7일 “전날 영광군청·영광소방서·(사)영광드론협회와 실종자 수색 대응을 위한 드론 지원 업무협약을 가졌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영광지역 실종자 발생 시 신속·효율적 수색을 위해 민·관 드론을 참여시키고 무인비행장치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정보를 공유,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군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박삼서 영광경찰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실종자 조기 발견·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색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영광경찰서 흥농파출소는 지난 4일 개학을 맞아 흥농읍 자율방범대, 읍사무소, 김한규 영광군의회 부의장, 방과후 청소년 아카데미 교사와 학생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 안전을 위한 야간 합동순찰을 실시했다. /영광=김동규기자

본사소남

▲김종열 광주지방경찰청장 ▲정찬경 광주지방경찰청 경정관리과장